

(고등국어 예비단계) | 발음하는 대로 쓰기 |

| 소 개 |

1. 발음

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서는 ‘음운의 변동’을 다룹니다. 물론 지난 「고등학교 때 가져가야 할 중학문법」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은 ‘음운’이 무엇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1. 음운의 개념

(1)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2) 모음과 자음

① 모음: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ㆁ, ㆁ
--

② 자음: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목 안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ㅊ, ㅋ, ㆁ, ㅌ, ㅍ, ㅎ
---

2. 우리말의 모음 체계

(1) 단모음

- 개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 단모음의 분류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ㄱ	ㅡ	ㅏ
중모음		ㅑ	ㅓ	ㅕ	ㅗ
저모음		ㅓ		ㅕ	

(2) 이중 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ㆁ, ㆁ
---

3. 우리말의 자음 체계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나는 위치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ㆁ ㆁ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ㆁ ㆁ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ㆁ ㆁ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ㆁ ㆁ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1)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

- 입술소리: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잇몸소리: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 센입천장소리: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여린입천장소리: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목청소리: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2)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

- 파열음: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마찰음: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3) 소리의 세기에 따른 자음의 분류

- 예사소리: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에서 발음되며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음.
- 된소리: 성대 근육이 긴장되며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음.
- 거센소리: 성대 근육이 긴장되며 숨이 거세게 나옴.

4. 소리의 길이

- 국어에는 같은 모음이라 하더라도 소리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음.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하여 준다는 점에서 모음이나 자음과 마찬가지로 ‘음운의 역할’을 함.

예) 밤[粟][밤:]-밤[夜][밤], 말[語][말:]-말[馬][말], 병[病][병:]-병[瓶][병]

고등 국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숙지했다’고 가정하고 교과서 진도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아직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국어 수업을 듣는 경우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연습해 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발음한 대로 써보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고1 때 배울 ‘음운의 변동’이라는 부분이 대놓고 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단어의 발음을 본인이 발음한 대로 적지 못한다면, 음운 변동 규칙을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은 뭔가 잘 이해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계입니다.

## II. 발음을 적어 보기

실제로 여러분은 우리말을 잘 발음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도 ‘발음 자체’를 못 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니까요. 물론 어떤 단어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발음을 잘 모르고, 오해한 채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대체로 95%정도의 단어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발음하고, 5%정도의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국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발음하지만, 잘 쓰지는 못합니다. 저는 매년 고등학생들과 학기를 시작할 때 이 연습을 시키는 데, 단 한 번도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모두들 외국인이 된 기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 음운변동 규칙들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 하나를 원칙으로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

**“받침의 발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자 그럼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꽃 위	➡	[__ 꼬뒤__]
꽃 안 <sup>1)</sup>	➡	[__ ]
몫 <sup>2)</sup>	➡	[__ ]
앞고 <sup>3)</sup>	➡	[__ ]
물고기 <sup>4)</sup>	➡	[__ ]
싫다 <sup>5)</sup>	➡	[__ ]
외곶 <sup>6)</sup>	➡	[__ ]
핥고 <sup>7)</sup>	➡	[__ ]
되어 <sup>8)</sup>	➡	[__ ]
신발을 “신고” <sup>9)</sup>	➡	[__ ]
샷일꾼 <sup>10)</sup>	➡	[__ ]

갈등 <sup>11)</sup>	➡	[__ ]
깎다 <sup>12)</sup>	➡	[__ ]
숯불 <sup>13)</sup>	➡	[__ ]
앞날 <sup>14)</sup>	➡	[__ ]
대관령 <sup>15)</sup>	➡	[__ ]
그렇게 <sup>16)</sup>	➡	[__ ]
젖는다 <sup>17)</sup>	➡	[__ ]
일시 <sup>18)</sup>	➡	[__ ]
할 것을 <sup>19)</sup>	➡	[__ ]
갈 데가 <sup>20)</sup>	➡	[__ ]
하얀 “뚝 만이” <sup>21)</sup>	➡	[__ ]
뚝 위에 <sup>22)</sup>	➡	[__ ]
널찍한 <sup>23)</sup>	➡	[__ ]
밭+이랑 <sup>24)</sup>	➡	[__ ]
벼훅이 <sup>25)</sup>	➡	[__ ]
날알 <sup>26)</sup>	➡	[__ ]
받히었다 <sup>27)</sup>	➡	[__ ]
엎힌 <sup>28)</sup>	➡	[__ ]
우리집이오 <sup>29)</sup>	➡	[__ ]
뒷머리 <sup>30)</sup>	➡	[__ ]
예삿일 <sup>31)</sup>	➡	[__ ]
살피어 <sup>32)</sup>	➡	[__ ]
비어 <sup>33)</sup>	➡	[__ ]
수척한 <sup>34)</sup>	➡	[__ ]
까맣게 <sup>35)</sup>	➡	[__ ]



괜찮아요36) → [ ]

샷바느질37) → [ ]

뉘달하다38) → [ ]

밝히려39) → [ ]

갯장어40) → [ ]

팔죽41) → [ ]

빗살42) → [ ]

해돋이43) → [ ]

꽃가루44) → [ ]

못하고45) → [ ]

값만46) → [ ]

따뜻한47) → [ ]

옷나무48) → [ ]

가닥나무49) → [ ]

잣나무50) → [ ]

다섯째51) → [ ]

거짓말52) → [ ]

화살나무53) → [ ]

닥나무54) → [ ]

백만55) → [ ]

나뭇잎56) → [ ]

부엌문57) → [ ]

작년58) → [ ]

쉬는59) → [ ]

물놀이60) → [ ]

굳이61) → [ ]

닭장62) → [ ]

꽃마당63) → [ ]

굳히다64) → [ ]

닫히다65) → [ ]

꽃말66) → [ ]

물난리67) → [ ]

급박한68) → [ ]

숨이불69) → [ ]

갈증70) → [ ]

논일71) → [ ]

간히었다72) → [ ]

웁조리다73) → [ ]

할 바를74) → [ ]

책잡히다75) → [ ]

술하다76) → [ ]

넓적다리77) → [ ]

할 적에78) → [ ]

뭉뭉이79) → [ ]

책 넣는다80) → [ ]

놓는81) → [ ]

밟는82) → [ ]

굽는83) → [ ]

칼날84) → [ ]

신라85) → [ ]



뚫는86) → [ ]

훤네87) → [ ]

공권력88) → [ ]

닭고기89) → [ ]

갈 방향90) → [ ]

흙을91) → [ ]

밥솥을92) → [ ]

만형93) → [ ]

햇볕이94) → [ ]

몫만95) → [ ]

한라산96) → [ ]

식용유97) → [ ]

색연필98) → [ ]

국물99) → [ ]

늑막염100) → [ ]

할 수는101) → [ ]

등산로102) → [ ]

법학103) → [ ]

즈러밟고104) → [ ]

히읃105) → [ ]

할 세라106) → [ ]

발전107) → [ ]

헛웃음108) → [ ]

뻘대도109) → [ ]

묻히다110) → [ ]

홀이불111) → [ ]

급히다112) → [ ]

넓둥글다113) → [ ]

줄넘기114) → [ ]

밭일115) → [ ]

단련116) → [ ]

신림117) → [ ]

종로118) → [ ]

입버릇119) → [ ]

능력120) → [ ]

장미꽃만121) → [ ]

닿는122) → [ ]

밭갈이123) → [ ]

꽃다발124) → [ ]

눈요기125) → [ ]

꽃 한 송이126) → [ ]

뚫네127) → [ ]

곧이듣다128) → [ ]

백분율129) → [ ]

옴는130) → [ ]

잡히다131) → [ ]

앉아서132) → [ ]

뒹는133) → [ ]

측량134) → [ ]

미달이135) → [ ]



샷일136) → [ ]  
 솔잎137) → [ ]  
 흙냄새138) → [ ]  
 산뜻하다139) → [ ]  
 넓고140) → [ ]  
 답고141) → [ ]  
 아랫마을142) → [ ]  
 텃마당143) → [ ]  
 묶고144) → [ ]  
 귀찮은145) → [ ]  
 역할146) → [ ]  
 콩엿147) → [ ]  
 뽕느라148) → [ ]  
 넓더라149) → [ ]  
 직행열차150) → [ ]  
 짹네151) → [ ]  
 설익다152) → [ ]  
 날날이153) → [ ]  
 저녁연기154) → [ ]  
 미단이155) → [ ]  
 고깃국156) → [ ]  
 찻더미157) → [ ]  
 귓병158) → [ ]  
 자릿세159) → [ ]  
 찻잔160) → [ ]

길가161) → [ ]  
 손등162) → [ ]  
 등불163) → [ ]  
 술상164) → [ ]  
 몸짓165) → [ ]  
 잇몸166) → [ ]  
 숨이불167) → [ ]  
 단풍잎168) → [ ]  
 꽃망울169) → [ ]  
 무릎에170) → [ ]  
 끝인사171) → [ ]  
 낡는172) → [ ]  
 셋노랑다173) → [ ]  
 붉거나174) → [ ]  
 웃놀이175) → [ ]  
 밥물176) → [ ]  
 말며느리177) → [ ]  
 역마살178) → [ ]  
 얇는179) → [ ]  
 속력도180) → [ ]  
 덧쌓는181) → [ ]  
 맞붙임182) → [ ]  
 들녁을183) → [ ]  
 순환론184) → [ ]  
 봄여름185) → [ ]



**올바른 발음**

- 1) [꼬단]
- 2) [목]
- 3) [안꼬]
- 4) [물꼬기]
- 5) [설따]
- 6) [웨골/외골] 둘 다 인정합니다.
- 7) [할꼬]
- 8) [되여/되어] 둘 다 인정합니다.
- 9) [신꼬]
- 10) [상널꾼]
- 11) [갈똥]
- 12) [각따]
- 13) [순뿔]
- 14) [암날]
- 15) [대팔령]
- 16) [그러케]
- 17) [전는다]
- 18) [일씨]
- 19) [할꺼슬]
- 20) [갈떼가]
- 21) [돈마니]
- 22) [도뒤에/도뒤에] 둘 다 인정합니다.
- 23) [널찌칸]
- 24) [반니랑]
- 25) [벼홀치]
- 26) [나달]
- 27) [바치얼따]
- 28) [언친]
- 29) [우리지비요/우리지비오] 둘 다 인정합니다.
- 30) [뉘머리]
- 31) [예산닐]
- 32) [살피여/살피어] 둘 다 인정합니다.
- 33) [비여/비에] 둘 다 인정합니다.
- 34) [수처칸]
- 35) [까머케]
- 36) [괘차나오]
- 37) [삭빠느질]
- 38) [닥따라다]
- 39) [발키어]
- 40) [괘짱어]
- 41) [관쪽]
- 42) [빈쌀]
- 43) [해도지]
- 44) [꼰까루]
- 45) [모타고]
- 46) [감만]
- 47) [따뜨탄]
- 48) [온나무]
- 49) [가당나무]
- 50) [잔나무]
- 51) [다선째]
- 52) [거진말]
- 53) [화살라무]
- 54) [당나무]
- 55) [뱅만]
- 56) [나문닙]
- 57) [부영문]
- 58) [장년]
- 59) [성느]
- 60) [물로리]
- 61) [구지]
- 62) [닥짱]
- 63) [꼰마당]
- 64) [구치다]
- 65) [다치다]
- 66) [꼰말]
- 67) [물랄리]
- 68) [급빠칸]

- 69) [숨니불]
- 70) [갈쭙]
- 71) [논닐]
- 72) [가치얼따]
- 73) [읍쪼리다]
- 74) [할빠를]
- 75) [책짜피다]
- 76) [수타다]
- 77) [넙쩍따리]
- 78) [할저계]
- 79) [몽목씨]
- 80) [챙닌는다]
- 81) [논느]
- 82) [밤느]
- 83) [궁느]
- 84) [칼랄]
- 85) [실라]
- 86) [똥른]
- 87) [할레]
- 88) [공뀐녁]
- 89) [닥꼬기]
- 90) [갈뽕양]
- 91) [홀글]
- 92) [뱌쪼틀]
- 93) [마텅]
- 94) [할뻬치]
- 95) [몽만]
- 96) [할라산]
- 97) [시공뉴]
- 98) [생년필]
- 99) [궁물]
- 100) [능망념]
- 101) [할쭙느]
- 102) [등산노]
- 103) [버팍]
- 104) [즈러밥꼬]
- 105) [히음]
- 106) [할썰라]
- 107) [발쩐]
- 108) [허두슴]
- 109) [뻬때도]
- 110) [무치다]
- 111) [훈니불]
- 112) [구피다]
- 113) [넙똥글다]
- 114) [줄림끼]
- 115) [반닐]
- 116) [달런]
- 117) [실림]
- 118) [중노]
- 119) [입뻬를]
- 120) [능녁]
- 121) [장미꼰만]
- 122) [달른]
- 123) [받까리]
- 124) [꼰따발]
- 125) [눈노기]
- 126) [꼬탄송이]
- 127) [똥레]
- 128) [고지들따]
- 129) [백뻬눌]
- 130) [음느]
- 131) [자피다]
- 132) [아라서]
- 133) [당느]
- 134) [층냥]
- 135) [미다지]
- 136) [상닐]
- 137) [솔립]



- 
- 138) [홍냄새]
  - 139) [산뜨타다]
  - 140) [널꼬]
  - 141) [담꼬]
  - 142) [아랜마을]
  - 143) [툰마당]
  - 144) [물꼬]
  - 145) [귀차는]
  - 146) [여칼]
  - 147) [콩년]
  - 148) [뽕느라]
  - 149) [널떠라]
  - 150) [지깁널차]
  - 151) [잠네]
  - 152) [설릭따]
  - 153) [난나치]
  - 154) [저녕년기]
  - 155) [미다지]
  - 156) [자릴씨]
  - 157) [잼떠미]
  - 158) [곶뽕]
  - 159) [자린씨]
  - 160) [찰짚]
  - 161) [길까]
  - 162) [손똥]
  - 163) [등뽕]
  - 164) [술쌍]
  - 165) [몸짚]
  - 166) [인뽕]
  - 167) [숨니불]
  - 168) [단풍닙]
  - 169) [꼰망울]
  - 170) [무르께]
  - 171) [끄던샤]
  - 172) [난는]
  - 173) [샌노라타]
  - 174) [불거나]
  - 175) [윤노리]
  - 176) [밤물]
  - 177) [만며느리]
  - 178) [영말쌀]
  - 179) [할른]
  - 180) [송녀또]
  - 181) [던싼는]
  - 182) [만뿌침]
  - 183) [들러클]
  - 184) [순환논]
  - 185) [봄녀름]